

# 도, '설' 민생안정 종합 대책' 추진

###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점

전북도는 민중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설은 AI 발생에 따른 불안확산,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등을 감안해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도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외에도 의료,교통,복지 등 분야별 도·시군,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AI 발생 및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농장단위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추진 운영한다.

아울러, 2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60개 전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근무

(인원 10,329명, 장비 377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287개소에 대해 소방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국내의 경기 침체로 소비가 많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상품 판매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전년 대비 100% 확대해 6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5%, 법인 3%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 우수 상품 특관판매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26개소, 10~20%), 110개 부스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진행해 지역 우수상품 판매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도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전 공공부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위문방문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무료할인, 시설개방을 통해 도민과 귀성객들에게 풍성한 전북의 즐거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32개 명절 성수품에 대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물가 동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과,배 등 과실,채소류를 평년대비 140% 수준으로 공급하고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 축산물 공급 확대로 명절 성수품 수급불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완화하고, 체불입금 해소를 위해 합동 지도

반을 편성,운영한다.

전북도는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임시버스(20대/일)를 상시 대기하고, 철도 운영을 14회 증회하는 등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일평균 당직의료기관 200여개소, 일평균 휴일지킴이약국 220여개소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의 판매, 제조업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재난재해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대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소외계층 지원 대책 확대 정책을 추진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18일 도내 건설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코오롱한경서비스 등 대형건설사 관계자와 지역 건설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도내 대형사업장 지역업체 참여 모색

### 대형건설사 관계자·지역 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18일 도내 건설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코오롱한경서비스 등 대형건설사 관계자와 지역 건설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에서 올해 처음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형사업장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토론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동서2축 건설공사 등 10개의 사업 현장건설업체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부문 SOC규모 축소에 따른 건설업 위기와 전북 건설업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 대규모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들에 대한 참여 배려와 지역내 건설자재, 인력, 장비를 최대한 사용해줄 것과 지역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각사에서 도내에서 인연을 맺은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기쁜웃음(전문근사)'의 자세로 건설현장과 발주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개발청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

전북도는 안전신고 체험사례 공유 및 안전신고 문화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에 나섰다.

체험수기 공모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안전신고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안전신고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소감 부분과 접수·처리 기관에서 위협요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 부분으로 나눠 공모한다.

최우수상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우수상 2명에게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손해보험협회장상과 상금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공모방법은 체험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A4용지 5매 내외)하여 우편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3월 15일에 선정될 예정이며, 사례집으로 발간돼 배포될 예정이다.

김철모 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수기 체험공모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 생활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참가 시군 모집

### 도, 2월 10일까지... 내일 사업설명회 개최

차세대 관광콘텐츠로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역의 특화된 실감,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의 과제 공모를 위해 2월 10일까지 참가 시군을 모집한다.

1시군 1콘텐츠 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의 전통, 역사적 고유한 문화자원과 지역의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를 활용해 실감,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관광 산업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등 토탈관광 상품으로 파생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지역에 개발 설치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도내 우수 콘텐츠 기업의 기술을 접목해 도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내 기업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14개 시군 및 도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일 10시(기업대상)와 14시(시군대상)에 진흥원 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진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운영방안과 콘텐츠 개발 방향 등을 전달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시군 및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jxcia.or.kr / 063-282-2056)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도 순창 발효소스도굴내 '전통장 미디어아트 체험 테마존 구축', 군산 진포해안테마공원내 '진포대첩 모션플랫폼 VR 체험관 구축', 무주 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연계한 VR 태권도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가 개발 진행 중이다.

구형보 문화예술과장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 관광, 역사 자원 등을 재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일진제강에 투자유치 요청

전북도는 18일 일진제강의 전북 투자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흥 정무부지사와 이교진 일진제강 대표,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진제강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이교진 사장의 취임 축하와 함께 임실제2농공단지에 일진제강 투자를 위해 마련됐다.

진흥 정무부지사의 투자 요청에 대해 이교진 일진제강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현실을 설명하고, 일진제강의 수익창출을 위한 공장 현대화, 강관사업의 일원화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임실제2농공단지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논의를 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에 따라 일진제강은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완주 구이~임실 신덕 국지도 내일 개통

### 운행거리 3.2km · 운행시간 10분 정도 단축

전북도는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서 임실군 신덕면 신희리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5.64km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

계곡~신덕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지난 2009년 착공해 총 6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터널 1개소(870m), 교량 7개소(1,217m), 평면교차로 4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분도로 개통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3.2km, 운행시간도 1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와 국도 27호선, 지방도 714호,749호선과도 연결돼 완주와 임실을 연결하는 동서축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접근성 향상 및 사선대, 우정호, 모악산 등의

지역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덕2교(626m)는 전북도에서 시공한 최초의 사장교로 교각 위에 세운 주탑에서 케이블로 주빔(main beam)을 지탱하도록 설계됐으며 하천과 비탈면 보호를 위해 교각 설치에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성을 중점으로 시공해 하늘나래(하늘을 향해 휘어 비스듬한 듯한 역동적인 교량)를 모티브로 건설됐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자재, 장비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박진현(550430-1\*\*\*\*\*) - 남  
▲박중천(640102-1\*\*\*\*\*) - 남  
▲박형진(671025-1\*\*\*\*\*) - 남

송정규(300310-2\*\*\*\*\*)씨가 그의 세 아들인 박진현, 박중천, 박형진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주소: 전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2번지  
\*\*연락처: 010-3903-8619(송정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